



최동순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한국구술인물사 / 여익구 민족문화정책연구소 이사장⑤

불교운동사의 큰 획, 민중불교운동연합

탄허 스님은 여익구가 요주의 인물임을 잘 알았다. 유신 시절, 여익구 주위에는 항상 수사관들이 맴돌았다. 주위의 극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그런 젊은이를 거리낌 없이 제자로 받아들였다. 자신의 시봉으로 맞이했고, 함께 잤으며, 참선했고, 목욕까지도 함께 했다. 여익구와 함께 24시간 함께 했다. 그 이유는 스님들이 기거하는 대중방에서 여익구가 배제될 것이 확실하다고 본 것이다.

여익구의 범명은 벽정(覓丁)이며 효당 스님으로부터 받은 이름이다.

여익구는 1980년대 치열했던 불교운동 즉 민중불교의 주역이다. 당시 치열했던 상황과 달리 회고하는 여익구의 눈가에는 웃음마저 머물고 있다. 그러나 최후탄이라는 말 한마디가 알려주듯, 엄혹한 시간이며 암울함이 끝없이 펼쳐지던 시간을 짐짓 호탕한 목소리로 달래고 있다.

1983년 신홍사 사대로 여익구는 비상종단운영회의에 참여하였지만, 끝내 개혁종단으로 이끌지 못했다. 이듬해 여익구는 모든 직책을 벗어던지고 야인으로 돌아갔다.

“보수세력이 쳐들어와가지고 총무원 뺏겨. 중앙권력을 뺏겼다 말이죠. 그러니까 다 쫓겨났어. 이 사람들이 나하고 같이 했던 동지들이 또 그러니까 동지들한테 실망을 해서 동지를 떠났는데 동지들도 쫓겨났으니까 난 더군다나 입지가 없

는 거예요.”

여익구는 1984년 글쓰는 일에 몰두하면서 여러 곳에 민중불교운동 관련 내용을 기고했다. 또 <민중불교 입문>(1985)을 쓰게 된다. 민중불교운동연합은 어느 순간에



평양정정사 방산굴

결성된 것이 아니라 탄생의 충분한 배경을 갖는다. 그는 종단운영회의에 참여하면서 종책연구소를 만들었다. 또 여익구는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을 창립했다. 이는 당시 재야에서는 민민협이나 민통련 등이 결성되던 시기와 함께 한다.

1985년 여익구의 활동은 현저히 다른 성격을 갖는다. 1970년대에 잉태했던 스

님들의 지지기반과 활동 지원이다. 1980년 끝돌이었던 10·27법난에 이어, 1983년 신홍사 사대로 여익구는 스님들을 다그쳤고, 스님들은 선봉에 선 여익구를 지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불련 지도범

들이 시작한 거야. 그 조직을 만드는데 한 6개월 가더러구요.”

“1984년도 겨울에는 그 민민련 만드는 조직에 전부다 했어요. 내가 일일이 그 때 암울한 시절이니까 다 피헤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하고 소곤소곤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그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 또 스님들은 전국에 날려있잖아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했다고 나중에 이름 올렸단 말만 마하겠어. 그건 또 일종의 비밀결사 같은 건데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또 그 당시 차비가 어디 있습니까 가면 또 옛날에 조금 그래도 불교를 위해서 했다 뭐. 이름이 낫으니가 큰 스님들 몰래 찢어주는 돈 용돈 쓰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은 거야.”

드디어 창립일이 가까워졌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1985년 5월 4일을 D데이로 잡았고 장소는 한글회관으로 정했다. 고은 선생이 연설하기로 약속하였고, 자신이 취임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새를 알아챈 경찰이 어김없이 한글회관 진입을 막았고, 여익구 등 일행은 세종로까지 밀렸고,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 들어갔다.

1985년 쫓기는 몸으로 여익구는 민중불교운동연합 결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6개월이 소요됐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을 모태로 해서 민불련 민중불교운동연합이라는 조직을 만

들기 시작한 거야. 그 조직을 만드는데 한 6개월 가더러구요.”

“1984년도 겨울에는 그 민민련 만드는 조직에 전부다 했어요. 내가 일일이 그 때 암울한 시절이니까 다 피헤다녀야 되고 도망 다녀야 하고 소곤소곤 얘기해야 되고 뭐 이런 시절이니까 그 만나기도 어렵고 만나서 또 스님들은 전국에 날려있잖아요. 다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동의 안 했다고 나중에 이름 올렸단 말만 마하겠어. 그건 또 일종의 비밀결사 같은 건데 그러니까 만나서 얘기해야 되고 또 그 당시 차비가 어디 있습니까 가면 또 옛날에 조금 그래도 불교를 위해서 했다 뭐. 이름이 낫으니가 큰 스님들 몰래 찢어주는 돈 용돈 쓰고 그런 것들. 그러면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동의를 받은 거야.”

드디어 창립일이 가까워졌다. 모든 준비가 끝났다. 1985년 5월 4일을 D데이로 잡았고 장소는 한글회관으로 정했다. 고은 선생이 연설하기로 약속하였고, 자신이 취임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김새를 알아챈 경찰이 어김없이 한글회관 진입을 막았고, 여익구 등 일행은 세종로까지 밀렸고, 미리 예약했던 식당에 들어갔다.

1985년 쫓기는 몸으로 여익구는 민중불교운동연합 결성을 위한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6개월이 소요됐다.

“불교사회문화연구원을 모태로 해서 민불련 민중불교운동연합이라는 조직을 만

일 목 스님의 위빠사나 수행이야기3 - 마음이 대상을 안다

행복의 열쇠는 마음에

대상을 아는 것이 마음이므로 마음을 잘 이해하려면 대상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러면 대상(對象)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쉽게 말하면 마음에 의해서 인식될 수 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 사물, 생각 등 모든 것이 대상이 될 수 있다.

대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자. 대상을 뜻하는 팔리(pāli)어는 아람마나(ārammaṇa)와 아람바나(ālabana) 두 가지가 있다. 아람마나의 사전적 의미는 ‘매우 즐기는 곳’이다. 이 말은 갖가지 과일과 꽃이 열린 정원을 사람들이 즐기듯이 대상은 마음이 즐기는 것이란 의미이다. 실제로 사람들은 다양한 모습, 소리, 맛 등의 대상의 변화를 즐기면서 살아간다.

아람바나의 의미는 ‘매달려 의지한다’이다. 이는 힘없는 사람이 지팡이나 막대기를 의지해야 일어나고 설 수 있듯이 마음은 대상을 의지해야만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마음은 반드시 대상이 있어야 일어날 수 있으며 대상이 없이는 일어날 수 없다.

어떤 사람은 그림은 좋아하거나 아름다운 풍경, 색깔 등을 즐긴다. 어떤

전한 행복의 상태인 열반을 말한다.

색, 성, 향, 미, 촉, 범의 여섯 가지 대상들이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여섯 가지 감각기관과 접촉을 하면 마음은 대상을 알게 되는 데 이때의 마음을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이라 한다. 이중 앞의 다섯 가지인 안식, 이식, 설식, 신식을 전(前)오식(五識)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각각 현재의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만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의식은 과거, 현재, 미래를 분별하고 여섯 가지 종류의 대상을 모두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시간을 벗어난 대상인 개념과 열반도 알 수 있다. 이상으로 대상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무리 다양하고 복잡하더라도 근본적인 입장에서 보면 마음은 쉬지 않고 대상을 만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마음과 대상의 만남이 항상 행복해 질 수 있을까?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원하는 대상만을 만나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안다. 이 세상은 결코 내 뜻대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무모

좋은것 집착 않고 나쁜것 싫어하지도 않아야

사람은 아름다운 음악이나 멜로디를 즐긴다. 어떤 사람은 향수, 꽃향기, 음식 냄새 등을 즐긴다. 어떤 사람은 맛있는 음식, 술, 커피, 차 등을 즐긴다. 어떤 사람은 비단의 부드러움, 이성의 부드러운 피부 등을 즐긴다. 어떤 사람은 생각, 멋진 이론, 깊은 집중, 사상, 개념, 열반 등을 즐긴다.

이처럼 마음이 만나는 대상은 눈을 통해 볼 수 있는 형상[色], 귀를 통해 들을 수 있는 소리[聲], 코를 통해 맡을 수 있는 냄새[香], 혀를 통해 맛볼 수 있는 맛[味], 몸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감촉[觸], 의(意)를 통해 알 수 있는 법(法)의 여섯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감촉은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단단함이나 부드러움, 뜨거움이나 차가움, 움직임, 지탱함 등을 말한다. 의(意)는 마음이나 식(識)과 같은 개념이다. 법이란 형상, 소리, 냄새, 맛, 감촉을 제외한 나머지 물질, 마음, 여러 가지 심리현상, 개념, 완

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대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는 시도는 무모한 일이 다. 설령 대상을 통해 우리가 행복을 느낀다고 하더라도 대상이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대상을 통해 행복을 느끼는 것이다. 즉 모든 행복의 열쇠는 마음이 쥐고 있다는 말이다.

원하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집착하지 않고 원하지 않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언제나 평온하게 대상을 만날 수 있다면 이것이 이 세상에 가장 쉽게 행복을 얻는 방법이다. 결국 우리의 행복은 대상에 달린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것이 옛 성인들이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자신의 마음에서 찾으라”고 말씀하신 이유이다.



일목 스님(계따와나 명배선원장)

경봉 스님이야기 - 삼소굴의 향성⑤

근대 통도사 근간 이룬 성해 스님 문하로 출가해

부처님의 생애는 크게 팔상성도(八相成道)라 하여 여덟 부분으로 나뉜다.

경봉 스님의 삶도 91년 평생을 4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1892년 탄생에서 출가이전까지인 1906년까지, 둘째는 1907년 출가수행해 성도한 1927년 36세까지, 셋째 성도하신 후부터 1953년 62세까지 전법도생기(傳法度生期), 넷째 1953년 극락선원 조실로 추대된 후 1982년 입적하신 때까지 극락암에서의 선원대중을 수행점검한 기간으로 볼 수 있다.

스님은 1892년 4월 9일 경남 밀양 부내면 계수동(서부리)에서 부친 경주 김씨 영규(營奎)와 모친 안동 권씨의 인연으로 탄생했다. 속명(俗名)은 김응국(金鏞國), 법

명은 정석(靖錫), 법호는 경봉(鏡峰), 자호(自號)는 원광(圓光)이었다.

어린 시절 남달리 총명했던 경봉 스님은 7세에 한문서당에서 공부하고, 강달수(姜達壽) 선생 문하에서 유학을 배웠다. 스님이 성장하던 시기는 동학혁명, 갑오경장, 청일전쟁, 러일전쟁 등 국내외적 격변기로 혼란스러웠다. 스님은 15세에 모친상을 당한 뒤 인생의 무상(無常)을 절감해 출가를 했다.

경봉 스님은 밀양에서 가까운 양산 통도사 성해담거(聖海南巨; 1854~1927, 당시 54세) 스님을 은사로 1907년 16세에 출가했다. 성해 스님은 근대 통도사의 근간을 이룬 큰스승이었다. 비명(碑銘)에 의하면 환성지안(喚醒志安; 1664~1729) 스님의

10세 법손인 성해 스님의 법을 경봉 스님이 잇고 있다고 한다.

성해 스님은 기장군 장안사(長安寺)에서 취룡당(龍龍堂) 태일(泰逸)스님을 은사로 득도하고, 대교과를 마친후 화두를 들고 참선 정진해 깨달음을 얻었다. 이후 1880년 통도사로 옮긴 스님이 1892년 통도사 승통(僧統) 소임을 보게 되자, 1900년 경허(鏡虛; 1849~1912) 스님이 통도사를 찾아 정진했다. 이듬해인 1901년 7월 만공(滿空; 1871~1946) 스님도 통도사 산내암자인 백운암에서 정진했다. 이에 성해 스님은 1905년 통도사 내원암에 선원을 개원하고 한암(漢巖; 1876~1951) 스님을 조실로 초청해 남자들을 지도케 했다.

성해 스님은 1906년 통도사 황화각(皇華閣)에 불교전문강원을 설립하고 신식 교육기관인 명신학교(明新學校)도 설립했다. 1914년 보광선원(普光禪院) 원장이 되어 남자들에게 직접 화두참구를 지도하고 선원스님들을 양성했 외호했다.

통도사를 중심으로 왕성한 활동한 성해 스님은 구하천보(九河天輔; 1872~1965), 경봉정석(鏡峰靖錫; 1892~1982), 재하법성(齋河法晟), 경하달윤(鏡河達允)과 같은 뛰어난 제자들을 배출했다.



정도 스님(통도사 포교국장)

여름엔 시원하게~ 겨울엔 따뜻하게~ 4계절 모두 사용할 수 있는

네츄럴 삼베 멩석 카펫

오직~ 현불샵에서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농치지 마세요!! *전제품 무료배송*

◇ 원산지 : 한국

(중) (대)

■ 삼베 멩석 카펫

- ◇ 크기 : 가로 280× 세로 180 × 두께 약 1cm
- ◇ 용도 : 법당, 대청마루, 거실
- ◇ 가격 : 330,000원

■ 삼베의 기능 및 특성

- 1.항균기능 (99.9% 방충 탈취 기능)
 - 진득이, 곰팡이균 발생 원천 봉쇄, 위생성 우수
- 2.수분 흡수 및 발산 (면의 42배)
- 3.온도조절 기능 (여름에 따뜻하고 겨울에 따뜻한 특성)
- 4.난연성, 내열성 및 내마모성 우수
- 5.자외선 차단 기능 (99.9% 차단)
- 6.전자파 차단 기능 (86% 차단)
- 7.적외선 흡수 기능, 혈액, 알파, 감마선의 비투과성

■ 삼베 매트 (大) 가로 180 × 세로 70 × 두께 0.8cm ⇨ 120,000원 1인용 매트로 최적!

■ 삼베 매트 (中) 가로 75 × 세로 50 × 두께 0.8cm ⇨ 60,000원 차운전석 시트로 최적!

- ◇ 용도 (공용) : 요거룸, 매트룸, 스트레칭, 명상수련, 활공, 휴식 등에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특징 : 손으로 직접 제작한 천연제품으로 일반 나일론 제품과는 다릅니다.
- ◇ 사용 초반에는 석유 냄새가 날 수 있으나 마 특유의 냄새이므로 1주일 뒤면 냄새가 사라집니다.

구입문의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